‘6이닝 1실점 호투’ 류현진, 불펜 난조에 시즌 2승 좌절

시즌 첫 QS 호투…평균자책점 4.05로 ↓

토론토, 연장 승부치기 끝 5-4 ‘진땀승’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잘 던지고도 불펜 방화로 시즌 2승을 놓쳤다.

토론토는 연장 접전 끝에 5-4 진땀승을 거뒀다.

류현진은 12일 미국 뉴욕주 버팔로의 살렌 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2피안타(1홈런) 2볼넷 7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투구 수는 92개. 이 중 스트라이크는 57개였다.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QS,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한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5.14에서 4.05로 내려갔다.

류현진은 팀이 3-1로 앞선 7회초 교체돼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팀이 4-1로 앞선 9회말 마무리투수 앤서니 배스가 동점 스리런을 허용한 탓에 승리가 무산됐다.

류현진은 에이스다운 호투를 펼치며 제 역할을 했다.

지난해 말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에 계약한 류현진은 개막 직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경기에서 4⅔이닝 3실점에 그쳤고, 지난달 31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도 4⅓이닝 5실점으로 시즌 첫 패를 떠안았다.

그러나 류현진의 부진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6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올리며 부활 신호탄을 쐈고, 이날은 피홈런 하나를 제외하고 흠잡을 데 없는 투구로 에이스의 자격을 입증했다.

이날은 팀의 ‘홈 개막전’이자 살렌 필드의 개장 경기이기도 하다.

토론토의 홈 구장은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지만, 캐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로저스센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대체 구장을 물색하던 토론토는 트리플A 구장인 살렌 필드를 홈 구장으로 쓰기로 했다.

하지만 마이너리그 경기를 치르던 곳이라 시설 확충이 필요했다.

토론토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 이날 처음으로 ‘홈 구장’인 살렌 필드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됐다.

살렌 필드의 마운드에 선 류현진이 출발을 산뜻하게 끊었다.

류현진은 1회초 선두 조나단 비야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7구째 높은 커브로 비야의 방망이를 이끌어냈다. 이어 존 버티를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헤수스 아귈라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코리 디커슨을 2루수 땅볼로 잡고 이닝을 마쳤다.

2회 유일한 실점이 나왔다. 선두타자 브라이언 앤더슨을 막지 못했다.

류현진이 풀카운트에서 앤더슨에게 던진 6구째 80.5마일(약 130㎞)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렸고,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이 됐다.

류현진의 시즌 세 번째 피홈런이다.

추가 실점은 없었다. 류현진은 프란시스코 서벨리를 1루수 뜬공을 잡아냈다. 이어 루이스 브린슨과 로건 포사이드를 연속 삼진으로 솎아내고 이닝을 정리했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3회 선두 몬테 해리슨을 삼진으로 잡은 류현진은 비야에게 유격수 내야 안타를 허용했다.

유격수 보 비셋이 넘어지며 잘 잡았지만, 송구까진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았다.

류현진은 후속 버티에게 다시 한 번 땅볼을 유도했다.

그러나 비셋이 타구를 더듬었고, 결국 유격수 실책으로 1사 1, 2루가 이어졌다.

류현진은 아귈라에게 유격수 더블플레이를 유도, 실점 없이 위기를 벗어났다.

이날 첫 삼자범퇴는 4회에 나왔다. 디커슨과 10구 접전을 벌인 끝에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앞선 타석에서 홈런을 때린 앤더슨을 유격수 땅볼, 후속 서벨리를 2루수 뜬공으로 막아냈다.

5회 선두 브린슨과 승부는 아쉬웠다. 2스트라이크를 먼저 잡고 연속 4개의 볼을 내주며 볼넷으로 출루시켰다.

그러나 류현진은 로건 포사이드와 해리슨을 연속 삼진으로 요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2사 1루에서는 브린슨에게 도루를 허용했지만, 비야에게 3루수 땅볼을 유도해 이닝을 마무리지었다.

올 시즌 처음으로 6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쾌투를 이어갔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11일(현지시간) 미 뉴욕주 버펄로의 살렌 필드에서 열린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30이닝 2피안타(1홈런) 4K 1실점하고 4회 마운드에 올라 투구하고 있다.

버티를 높은 포심 패스트볼로 삼진 처리하고, 아귈라와 디커슨을 나란히 3루수 땅볼로 돌려세웠다.

류현진이 최소 실점으로 마이애미 타선을 묶어내자, 침묵하던 토론토 타선도 화답했다.

마이애미 선발 엘린저 에르난데스를 공략하지 못하고 0-1로 끌려가던 토론토는 6회말 대니 잰슨과 캐번 비지오의 연속 2루타로 무사 2, 3루를 일구며 단숨에 분위기를 바꿨다.

찬스에 타석에 선 비셋은 에르난데스의 4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좌월 스리런 홈런을 터뜨려 역전에 성공했다.

3-1로 앞선 7회말에는 볼넷 2개로 만든 2사 1, 2루에서 비지오가 1타점 중전 적시타로 추가점을 올렸다.

그러나 토론토는 4-1로 앞선 9회말 승리를 눈앞에 두고 동점을 허용했다.

마무리를 위해 등판한 배스가 버티에게 좌중간 2루타, 앤더슨에게 볼넷 등을 허용하며 2사 1, 3루에 몰렸고, 결국 서벨리에게 좌월 동점 스리런 홈런을 얻어 맞았다.

연장 10회부터는 무사 2루에 주자를 놓고 공격을 시작하는 승부치기에 돌입했다.

10회초 2사 2, 3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은 토론토는 10회말 경기를 끝냈다. 무사 2루에서 잰슨의 희생번트에 이어 비지오가 볼넷을 골라내고 비셋이 고의4구로 걸어나갔다. 1사 만루 찬스에서 트레비스 쇼가 우중간에 떨어지는 끝내기 안타를 날렸다.

전남 역도, 문체부장관배 들어올렸다…“남고부 우승 ‘번쩍’”

사상 첫 남고부 종합 우승

전남역도가 문체부장관배에서 3관왕을 무려 3명이나 배출하며 사상 첫 남고부 단체 우승을 거머쥐었다.

전남역도연맹(회장 장명철)은 지난 10일 강원도 양구에서 끝난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학생역도경기대회에 출전했다.

시도대항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 전남역도는 3관왕을 남중부에서 2명, 남고부에서 3명을 배출하는 등 금메달 1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 총 2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남고부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역도의 금빛 행진은 동생들이 먼저 시작했다.

남중부 81kg급에 출전한 김현호(완도중 3년)가 인상 100kg, 용상 130kg, 합계 230kg을 들어올려 3관왕을, 96kg급 문찬우(완도중 3년)는 인상 100kg, 용상 125kg, 합계 225kg으로 3관왕의 금자탑을 쌓았다. 남고부에서는 ‘신록’이 한국주니어기록을 번쩍 들어올렸다.

신록은 61kg급에 출전해 3관왕에 올랐다. 인상에서 기존 학생기록인 124kg보다 1kg 더 들어올리며 125kg, 용상은 153kg이던 종전기록보다 5kg 무거운 158kg, 합계에서는 종전 기록보다 1kg 더 무거운 283kg으로 용상과 합계에서는 학생기록을 넘어 한국주니어기록까지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남고부 89kg급에 출전한 강민우(완도고 3년)와 109kg급에 출전한 이승헌(전남체고 3년)도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강민우는 89kg급에서 인상 146kg, 용상 182kg, 합계 328kg으로, 이승헌은 109kg급에서 인상 160kg, 용상 190kg, 합계 350kg으로 각각 금메달 3개씩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55kg급 박은빈(고흥고 1년), 과 109kg급 정대관(완도고 3년)도 은메달 3개씩을 획득하는 등 남고부 종합우승에 힘을 보탰다.

전라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은 “전남역도의 남고부 종합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남 역도의 우승을 통해 코로나19에 이어 집중 호우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도민들이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프로농구 오리온, 크리에이터 7기 모집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이 2020~2021시즌을 함께 할 대학생 스포츠 마케팅 체험단 ‘오리온 크리에이터’ 7기를 모집한다고 12일 전했다.

크리에이터는 홈경기 운영 및 스포츠 마케팅 실습 등 구단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오리온은 스포츠 산업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2015시즌부터 크리에이터 제도를 운영했다.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인원은 12명 내외로 홈경기 개막일인 10월11일부터 시즌 종료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스포츠 산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휴학생·대학원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세부 내용은 오리온 공식 홈페이지 및 구단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종료 후에는 수료증과 기념품을 증정한다.

2020 bbq배 전국대학배구 무안대회 개최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개최

무안군은 한국대학배구연맹(회장 오승재)과 무안군체육회(회장 박인배)가 주관하는 ‘2020 bbq배 전국대학배구 무안대회를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무안군과 bbq가 후원하고 전국의 18개 대학 배구팀 선수 및 관계자 등 380여명이 출전하며, 학생 선수들의 진로결정을 위한 중요한 대회로써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연기 후 개최되는 만큼 정부의 방역지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진행할 계획이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관계자는 2주 전부터 사전배부한 문진표를 작성해야하며 대인방역소독기, 열화상카메라,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 철저한 출입과정을 거쳐야만 경기장 입장이 허용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회식 생략과 무관중 대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무안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안전관리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수단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식당 등에 코로나19 예방 안내 및 관리 수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였다.

결승전은 25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이번 대회 전 경기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준결승과 결승전도 JTBC 골프 앤 스포츠(GOLF&SPORTS)에서 생중계 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군민과 선수단의 안전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최지만, 보스턴전 5타수 무안타 3삼진

타율 0.196로 크게 떨어져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7월 2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미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4회 삼진 당하고 있다. 최지만은 이날 안타 없이 4타수 1볼넷 1득점 3삼진을 기록했고 탬파베이는 14-5로 승리했다.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29)이 무안타로 침묵했다.

최지만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20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경기에 1루수 겸 6번타자로 선발출전, 5타수 무안타 3삼진을 기록했다.

최근 4경기 연속 안타를 쳤던 최지만은 이날 한 이닝에 삼진을 2개나 당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시즌 타율은 0.220에서 0.196으로 크게 떨어졌다.

2회초 첫 타석에서 들어선 최지만은 보스턴 선발 마틴 페레즈를 상대로 스탠딩 삼진을 당했다.

4회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최지만은 7회 선두타자로 나와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탬파베이가 7회 공격에서 6점을 뽑으면서 최지만에게 다시 한 번 타석이 돌아왔다. 최지만은 또다시 삼진을 당해 체면을 구겼다.